하도급 선정 압력 지자체 간부에 실형

수원지법 "뇌물 받았다면 공정성 의심받기에 충분"

수원지법 제12형사부(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)는 건설공사 하도급자 선정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A씨에게 실형을 선고[사건번호:2010고합235]했다.

재판부에 따르면, A씨는 전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시 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한 B건설이 인근에서 시공중이던 모 건물 증축공사 일부를 특정업체에게 하도급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. A씨는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100만원 권 54장 총 5400만원을 압력행사 대가로 수수했다.

재판부는 "A씨는 발주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건축허가를 관장하고 있고 B건설은 발주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시공과정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"며 "특히 A씨가 B건설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시점은 구청 신축공사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인한 설계변경 금액을 협의하는 시기로 A씨의 B건설에 대한 직무상 영향력이 지대했다"고 밝혔다.

재판부는 따라서 "A씨가 B건설의 증축공사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영향력을 근거로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"고 덧붙였다.

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

수학여행

유럽 대륙 순회 여행은 18~19세기 귀족들이 자식을 외국에 보내 여행하게 한 것의 이름이다. 귀족의 아들은 가정교사와 함께 여행하면서 유럽의 문화를 보고 배웠고 외국어를 익혔다. 오늘날의 수학여행이 이 여행에서 비롯된 것이다. 경험을 중요시한 영국인들의 문화로, 고대 로마 인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여행한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. 영국인들은 그리스, 로마, 파리 등을 여행했고, 19세기 말엽에는 이집트 여행이 유행했다.

이에 따라 프랑스, 노르웨이, 이탈리아 등이 관광을 통해 얻는 이윤이 많아지게 되었다.

근대 관광 산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토머스 쿡 목사는 여행 알선업체를 세우고 최초로 런던에서 파리까지 단체 관광을 주선하기도 했다. 이 시기에 수많은 여행 안내서가 나왔다.

「말랑말랑한 절대상식」 中에서